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과반 실패...28일 결선투표

개표율 92% 득표율 49.49%...야권 단일후보 44.49% 득표 중신집권 vs 정권교체, 친유럽 vs 친러시아 결정 세계 주목

튀르키예에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운명의 대선'이 결국 과반을 차지한 승자를 가리지 못한 채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최장 2033년까지 사실상 '중신집권'의 길을 열게 되지만, 클르츠다로울루 대표가 승리할 경우 의회 민주주의를 복구하고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전환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튀르키예 뿐 아니라 나토와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5일 새벽 선거 관리 당국의 공식 집계로 개표율이 90%를 넘어선 시점에서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란 치러진 대선 개표율이 91.93%인 상황에서 득표율 49.49%를 확보했다.

양강 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맞수로 나선 야권 단일후보인 클르츠다로울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득표율 44.49%를 나타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카라에 결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가 1차 투표에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조국이 두번째 투표를 바라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

장 표명 직후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지도부에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 대선은 나토와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 유럽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소를 지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휩싸이게 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튀르키예는 오히려 러시아 제재로 가격이 내려간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도 경제적 이득을 봤다. 또 러시아에 필요한 수입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러시아의 고립을 막았다.

상당한 군사력을 지닌 튀르키예는 나토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원국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어 나토 동맹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스웨덴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관련자의 신병을 먼저 넘겨야 나토 가입을 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 실패는 곧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패로 간주될 것



1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 개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지지자들이 이스탄불의 정의개발당(AKP) 본부에서 이를 축하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를 4.7%포인트 차이로 제쳤으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로 보인다. 서방 제재에 불참한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득을 봤다. 러시아는 튀르키예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튀르키예를 천연가스 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러시아 관광객들도 튀르키예에 몰리고 있다.

이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당인 정

의개발당(AKP)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94% 상황에서 AKP가 주도하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은 49.6%로 예상 의석수는 324석이고, CHP가 주도하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35%로 예상 의석수는 211석이다.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는 600석이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대반격 앞두고 숨가쁜 유럽연합 외교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주말 사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을 순방하며 숨가쁜 외교 행보를 펼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동,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했다.

파리 인근 공군기지에 도착해 엘리제베트 보른 총리의 영접을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의 친구 에마뉘엘(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양자 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 방문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및 공격 역량이 확장되고 있다"며 "유럽과 연대는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유럽 순방에 의미를 부여했다.

작년 전쟁 발발 이후 한동안 해외 방문을 자제했던 젤렌스키의 프랑스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번 방문 역시 길게는 수일 전 일정이 일부 공개된 이탈리아, 독일 방문과 달리 도착 몇 시간만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프랑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태워 오기 위해 독일에 비행기를 급파하기까지 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1박 2일간 EU의 주요 회원국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 부채한도 상향 논의 바이든·공화당 재회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16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의 고든스 폰드 주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풀기 자단이 전했다.

그는 의회 지도자들과 16일에 재회동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협상 상황에 대해 "협상 중간에 협상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면서도 "나는 타고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물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은 지난 9일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은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시킨 뒤 12일에 재회동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회동 일정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인스턴트커피 인기로 로부스타 원두 부족 도매가 12년만에 최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소비자들이 값싼 커피를 찾고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 부족 현상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 애호가들은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고품질의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를 선호한다.

이에 비해 로부스타 원두는 통상 나무 관리가 쉬워 대량생산이 가능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인스턴트 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 풍미를 혼합하는 블렌딩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재배업체들이 빠르게 커지는 로부스타 원두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번 주 도매가가 거의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태국 총선 반군부·왕실 개혁 세력 승리...총리 교체는 미지수

민주진영 야권 2개 정당 1·2위 차지 연립정부 구성 따라 정권교체 좌우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두 번째인 14일(현지시간) 태국 총선에서 '민주 진영' 야권 주요 2개 정당이 하위 500석 중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야권이 승리했지만, 어느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정권 교체 여부는 연립정부 구성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

현지 방송 타이PBS에 따르면 15일 새벽 2시 30분 현재 개표율 96% 기준 비공식 개표 결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하위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왕실모독죄 폐지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피타 림짜른랏(42) 대표가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 세력인 현 제1야당 프아타이당의 예상 의석은 141석이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퐁탄 친나왓(36)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아타이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기며 야권의 맹주 자리를 내놓을 처지가 됐다.

이어 폼차이타이당이 7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아누틴 잔위라곤 부총리 겸 보건장관이 이끄는 폼차이타이당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군부 중심의 현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향후 연정 구성 과정에서 폼차이타이당의 선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팔랑쁘라차랏당(PPRP)과 루엠타이쌍창당(RTSC) 등 두 친(親)군부 정당에는 각각 40석, 36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쁘라윗 원수원 부총리가 총리 후보인 PPRP는 지난 총선에서 집권한 여당이며, RTSC는 뿌라웃 잔오차 총리의 현 소속 정당이다. 뿌라윗 부총리와 뿌라웃 총리는 선 순후배 관계로, 2014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다.

군부를 대표하는 양당은 의석 합계가 80석에 못 미쳐 민주 진영 야당과 큰 격차를 보였다.

야권의 전진당과 프아타이당의 합계 의석은 300석에 육박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의석에는 못 미친다.

201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총리 선출에는 하위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한다. 상원이 군부 측에 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야권은 하원에서만 376표를 얻어야 한다. 군부 진영은 126석만 확보하면 된다.

총리 선출 방식은 군부 중심의 현 집권 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민심이 야권으로 쏠린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태국 정치권은 군부와 민주 진영 사이에서 연정 구성을 둘러싸고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선거에서는 탁신 가문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피타 전진당 대표가 주인공이 됐다.

선관위는 총선 후 60일 이내에 공식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총리 선출은 7~8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